

제 1 장 제작기반 강화

제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 2010년 사업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부문의 창의적인 방송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8년까지는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교양,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미니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 장르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받은 작품은 2010년까지 9년간 총 213편이며 장르별로 보면 다큐멘터리가 141편, 드라마 37편, 교양/교육과 DMB 등 기타 콘텐츠가 35편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완성작의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완성된 작품에 대한 국내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지원 작품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61억 원의 예산으로 6개 부문 57편의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 부문별로는 미니시리즈 4편, 단막극 16편, 대작다큐 5편, 중/저예산 다큐 28편, 3D 입체영상콘텐츠 4편, 지정과제 1편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 제작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단막극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많은 우수 연출가와 작가, 배우들을 발굴하는 산실의 역할을 담당했던 단막극은 수준 높은 영상미와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제작비용의 한계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은 역량 있는 신인 발굴 창구의 부재로 인해 소수의

스타 작가, 배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솔림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급증으로 제작비가 급상승하고 수익 또한 기형적으로 배분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방송산업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단막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공중과 방송사의 인식제고에 나서게 되었다. 2010년에는 신인작가와 연기자 등 총 144명을 발굴하여 해당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 작품 중 13편의 작품(KBS 5편, MBC 5편, SBS 2편, EBS 1편)이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표 7-1-1 지상파 채널에 편성된 2010년 지원 단막극 목록

작품명	제작사	방송사
나야 할머니	사과나무 픽처스	MBC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2부작)		SBS
도시락		MBC
돌멩이	마켓인사이트	KBS
터닝포인트		KBS
소년, 소녀를 만나다		KBS
오페라가 끝나면		KBS
우리들의 사랑은		KBS
서브웨이맨(2부작)		소원지
닉네임 김광자의 제3활동	눈썹달픽처스	MBC
신 조은지 패밀리		MBC
사랑을 가르쳐 드립니다	눈썹달픽처스	MBC
울엄마 오드리	리플레이 프로덕션	EBS

단막극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립제작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대작 다큐멘터리 5편과 중/소규모의 다큐멘터리 28편의 제작을 지원하였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3D 다큐멘터리 4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독립제작사들이 신규 분야에 대한 제작 노하우 습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체되어 있던 한류 붐을 재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상품성 높은 미니시리즈 3편에 대한 지원도 진행되었다. <로드넘버원>(로그스필름),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피엘에이엔 비픽처스), <나쁜남자>(굿스토리)가 해외 수출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특히 <로드넘버원>은 일본에 편당 12만 달러에 판매되어 그간 미니시리즈 평균 판매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었다.

표 7-1-2 2010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미니시리즈 부문) 성과

(단위: 천원)

구분	국내방송/판매	해외판매	계
로드넘버원	3,900,000	2,630,000	6,530,000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1,440,000	1,530,000	2,970,000
나쁜남자	2,800,000	2,240,000	5,040,000
합계	8,140,000	6,400,000	14,540,000

지원 작품의 해외 수상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도 이어졌다. 2009년 지원 작품인 다큐멘터리 <오래된 인력거>(트럼프미디어)는 다큐멘터리 부분의 칸영화제로 알려진 '2010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편경쟁부문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 2011년 사업 추진현황

2011년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2011년 5월에 총 37편의 지원 작품을 선정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제작을 진행 중이다. 장르별 선정 작품 수는 각각 다큐멘터리 24편, 단막극 10편, 미니시리즈 3편이며 11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콘텐츠 발굴과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11년 사업은 지원 작품 선정, 관리 절차의 많은 부분을 개선하였다. 독립 제작사의 저작권 확보와 사전제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향후 방송사 편성을 전제로 하는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였으며, 제안서를 5페이지 이내로 축소하고 제출 서류를 단계 별로 분리하여 서류 제출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금의 50% 이상을 보조출연자와 스템에 우선지급 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방송사 편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에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강화하여 완성작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또한, 독립제작사의 단막극 제작비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당 지원한도를 전년대비 100% 상향 조정한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단막극 부문 선정 작품의 매체편성과 국내외 선 판매를 위해 국제방송영상건본시인 BCWW(Broadcast Worldwide) 2011 행사에 단막극 홍보부스를 개설, '단막극 피칭(Pre-sale pitching)' 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바이어 대상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이는 우수 단막극을 효과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작품의 완성 이후의 판로를 개척하며, 방송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막극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제2절 재제작(Post-Production) 지원 사업

1. 2010년 사업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사업은 한국 방송콘텐츠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우수 방송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되어 방영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사정과 규격에

맞는 번역, M/E(Mix/Effect)분리, 자막, 더빙 등의 재제작을 지원한다. 재제작 지원은 1999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사업으로 재제작 비용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재제작 작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수출을 견인하며 한국 방송영상콘텐츠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2010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은 총 26개 업체 39개 작품에 8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제1차 지원에 18개 업체 26개 작품이, 제2차 지원에 11개 업체 13개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장르별로는 드라마가 15개 작품으로 가장 많았고, 다큐멘터리가 14개, 교양·오락 프로그램이 10개였다. 이러한 재제작 지원 사업을 통하여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2,2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는데, 특히 <탐나는도다>, <선덕여왕>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재제작 지원을 통해 약 1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는 등 (<탐나는도다> 14개국, <선덕여왕> 16개국), 기존 아시아권 및 미주지역을 비롯하여 카타르, 루마니아, 브루나이 등 유럽, 중동 등 신규시장 진출도 시도할 수 있었다.

표 7-1-3 지원현황

장르	작품수	수출실적 (USD)
드라마	15개 작품	20,507,000
다큐멘터리	14개 작품	685,242
교양·오락 등	10개 작품	695,800
총계	39개 작품	21,888,042

2. 2011년 사업 추진현황

2011년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외수출 증대, 신시장 개척,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번역, 자막, 더빙, M/E 분리, 종합편집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재제작 지원 사업 역시 지원규모를 수출계약여부, 증빙여부, 마케팅활동, 장르별 지원범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도록 했으며, 평가기준과 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필요서류는 선정 작품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여 신청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다. 참여업체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주요 단계별 연락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하도록 했으며, 재제작 협력업체 관리와 지원업체 성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37개 업체 51개 작품에 대해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협약체결작품은 <표 7-1-4>와 같다.

제7부_ 방송영상산업 지원 동향

표 7-1-4		협약체결작품
차수	작품	업체
1차	세계교육현장	대한미디어월드
	라이브코리아한류정보	제이픽처스
	제빵왕김탁구	KBS미디어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4	리안컨텐츠
	살맛나는 세상	크레오컨텐츠
	짜패	MBC프로덕션
	국립공원, 생명의 씨앗이 되다	미디어길
	투애니원 티비 시즌2	컴퍼니케이
	생활의 달인 시즌4	더와이엔비
	음식으로통하라	제삼비전
	더뮤지컬	에브리쇼
	엠슈퍼콘서트	나무엔미디어
	더뮤지트	커뮤니케이션레드박스
	스페셜데이스녀시대와카라	씨유미디어
	극한직업	한국교육방송공사
	이뉴스	아이엔키
	장난스런 키스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이용식의파워콘서트	실버아이
계	18개작품	18개업체
2차	대보초의 하얀 죽음, 해파리와외의 전쟁	오션플래닛
	세계교육현장 2	대한미디어월드
	바람의 땅 라다크-구도의의사 우르간 차간호와 겨울여부	피디집
	사랑을 믿어요	KBS미디어
	명인	해피스토리미디어
	철의문명사 스틸루트	사계절비엔씨
	에메이징아시아 2	김진혁공작소
	영웅호걸	드림팩토리
	골든디스크시상식, 슈퍼주니어의 슈퍼썸머, 와일드바니	커뮤니케이션레드박스
	내마음이 들리니	MBC프로덕션
수학 의원리 마테티카	한국교육방송공사	
계	15개 작품	11개 업체
3차	고려의 귀환, 남극-야생의 부름	대한미디어월드
	레시피 공작소, 푸드매거진 잇	푸드티비
	시티헌터, 내게 거짓말을 해봐, 신기생던	SBS콘텐츠허브
	서울가요대상시상식, 소녀시대의 팩토리걸, 엠넷케이엠뮤직페스티벌, 트렌드리포트필 시즌6	나무엔미디어
	소녀 K, 로맨스가 필요해, 엔카운트다운	씨제이이엔엠
	넌 내게 반했어	제이에스픽처스
	최고의 사랑	엠비씨씨엔아이
이뉴스 시즌2, 슈퍼스타 K2	아이엔키	
계	18개 작품	8개 업체

제3절 창작기반구축 지원 사업

1. 2010년 사업현황

2010년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방송대본 DB구축, 방송대본 서비스 운영 방안 수립, 대학생 방송창작 콘텐츠 지원, 방송작가 국제세미나 개최 등이 추진되었다.

방송대본 DB구축 사업은 문화사료적 가치가 있는 방송대본을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수집한 대본 약 61,000여권의 대본을 2007년까지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구축하고 2009년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7-1-5 2010년 방송대본 DB 구축 현황

종류	형태	수집량	2007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쇄대본	인쇄물	55,712	12,703	2,053	6,991	21,747
유틸원고	원고	5,690	3,363	1,563	614	5,540
합 계		61,402	16,066	3,616	7,605	27,287

2010년 한 해 동안 방송대본은 유틸대본 614권, 인쇄대본 6,991권이 DB화되었다. 방송대본 DB구축은 방송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규모의 방송대본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하고 스토리의 재창조를 위한 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임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표 7-1-6 2010년 방송대본 DB 구축내역

DB화 대상 대본 종류		인쇄대본	유틸원고	합계
DB화 대상 작품수		200편	25편	225편
DB화 대상 권수		6,991권	614권	7,605권
DB화 대상	드라마	6,991권	142권	7,133권
	비드라마	-	472권	472권
DB화 대상 면수		105,000면	9,085면	114,085면

한편, 구축된 방송대본의 체계적 서비스를 위한 '방송대본 서비스 운영방안 수립' 사업이 2010년에 함께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총목록(연대표, 1954~1996 KBS) 작성을 시작하였다. 방송프로그램 총목록은 3개년에 걸쳐 완성할 예정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7부_ 방송영상산업 지원 동향

2010년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나머지 두 사업 중 대학생 방송 창작콘텐츠 제작지원은 대학생(아마추어)의 방송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 한해 동안 총 12편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지원 내역은 <표 7-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작품명	주관기관명
불편한 진실, 빛 공해의 악몽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우리말(말모이)의 탄생	동아방송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북한애니메이션: 어린이를 위한 그림영화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의 꿩뒀푸를 찾아서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의학, 인문학에 길을 묻다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OCEAN BLUE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막대사탕	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
페어플레이	경희대학교
노점의 새로운 도약	경성대학교산학협력단
19와 20의 경계선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
잠	서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천사와 놀아나다	서울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또한 <일본 드라마의 세계-일본시장의 신한류 확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2010년 10월 부산에서 '방송작가 국제세미나'가 열렸는데, 영화 <우나기(うなぎ)>의 작가 토미카와 모토후미(富川元文)의 '일본 드라마와 영화의 현실', 2009년 한일합작 멜로영화 <결혼식후에>의 대본을 쓰기도 한 작가 요코타 리에(横田理恵)의 '불안한 시대의 드라마', 일본 연예잡지인 'TV피야'의 전 편집장이치가와 마사히토(市川雅仁)의 '일본 드라마 변천 속에서 본 한류의 동향과 전망' 등의 강연에 국내외 작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2. 2011년 사업 추진현황

2011년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사업은 방송대본 DB구축, 방송대본 DB서비스, 방송프로그램 총목록 작성, 방송작가 국제포럼, 방송작가 공동 창작공간 구성, 방송영상 프로그램 시상식인 방송영상 그랑프리 등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방송대본 DB 구축의 2011년에는 인쇄대본 약 6,600권의 DB화를 목표로 파일형태의 대본도 시범적으로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대본 DB화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는 2011년 말 오픈 예정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또한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방송프로

그럼 총목록 작성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KBS(1997~2010), MBC(1961~1995) 방송프로그램이 작성되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 국제포럼은 <한국 예능 TV 프로그램 포맷의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제주에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맷분야를 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빙, 강연을 진행하여 포맷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켰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포럼에는 국내 최고의 예능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방송작가 공동 창작공간 구성의 경우 2009년 이후 작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창작공간 마련을 위해 방송작가협회와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작가지원현황 등을 파악하여 상반기에 목동 스토리창작 센터 내에 방송작가 창작공간을 마련하였다. 현재 8개실에서 14개 팀이 이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방송작가들의 집필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방송영상분야의 유일한 정부포상인 방송영상 그랑프리는 2011년 모든 방영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방송영상 그랑프리 포상의 폭을 넓히고 위상 역시 보다 강화하여 12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제4절 포맷제작 지원

1. 2010년 사업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 지원'은 고부가가치 콘텐츠인 방송프로그램 포맷산업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지원 분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부터 기존 프로그램의 바이블화, 그리고 해외공동제작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의 포맷바이블 제작, 해외공동제작, 신규포맷개발의 세 분야로 나누어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기존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을 위한 포맷바이블 제작은 KBS의 <도전골든벨>을 포함하여 4작품, 해외공동제작은 브로드스튜디오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을 포함하여 2작품, 신규 포맷개발은 엔미디어의 <된장과 바게뜨> 등 2작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포맷분야가 국내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야임을 감안하여 9월에는 포맷관련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포맷전문가들이 사업 가이드와 함께 프로젝트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과제 8편이 완성된 후 해외홍보를 위해 포맷 전문사이트인

제7부_ 방송영상산업 지원 동향

C21media(www.c21meida.net)에 프로그램 소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전골든벨>이 베트남에, 또 전년도 지원작인 <우리 결혼했어요>가 터키에 수출되어 2시즌이 방송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표 7-1-8 제작지원 완성작

구 분	과제명	업체명
포맷 바이블 제작	도전골든벨	KBS미디어
	연애반란-내 애인을 부탁해	에브리쇼
	남녀탐구생활	씨제이미디어
해외공동 제작	꼴찌탈출	케이유엠앤지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엠넷미디어
신규 포맷개발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브로드스톡
	된장과 바게뜨	앤미디어
	Oneway or Another	텔스톤

2. 2011년 사업 추진현황

2011년 '방송콘텐츠 포맷제작 지원'은 지난 2년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포맷의 개발과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수정하고 총 4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지원 하였다.

2011년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중 7편을 선정하였고, 총 4인의 멘토와 함께 35회의 포맷 개발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멘토링을

표 7-1-9 2011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지원 선정작품

2011	작품명	제작사
파일럿 제작지원	1억의 초대	(주)앤미디어
	복불복	(주)아이엠티브이
	당신의 선택 소다수	ATEAM엔터테인먼트
포맷바이블 제작지원	아레나	섬(閃)
	공통점을 찾아라	에브리쇼
포맷개발지원	당신의 선택 소다수	ATEAM엔터테인먼트
	아레나	섬(閃)
	5 또는 1	옵티콘미디어
	프로파일러 넘버원	(주)에프유엔미디어
	복불복	(주)아이엠티브이
	정글큐브	원원미디어
데스티네이션	(주)앤미디어	

통해 완성된 기획안은 국내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4편이 파일럿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들 지원작의 선정과정에서 방송사의 편성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칭(pitching)을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편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작지원 외에도 국내 포맷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최고의 포맷전문 교육기관인 엔터테인먼트 마스터클래스의 포맷아카데미에 국내 전문가 4명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11월 경 국내 작가, PD를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전달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 제작기반 강화

2 인프라 지원

3 예외유동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제 2 장 인프라 지원



제절 방송회관 제작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인프라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의 3개 층(4-6층)에 위치하고 있다. 방송회관은 1993년에 지어진 부지면적 4653.5㎡, 지상 21층 지하 6층의 건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협회 등의 방송유관기관 및 단체를 비롯하여 방송관련 업체, 독립프로덕션, 방송직능단체 등 37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3개 층에 위치한 주요 제작시설로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TV 스튜디오, HD/SD 후반 제작 지원시설, HD 제작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제작 지원시설을 통해 국내 영세한 독립제작사, 방송영상 콘텐츠 외주 제작사 등이 보다 원활한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공급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제작 지원시설을 통하여 제작사들은 고가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용 장비를 저가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작시설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습용 시설로도 활발히 이용되면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표 7-2-1 방송회관 제작센터 주요시설

시설명	면적	층수	시설내역	비고
TV 스튜디오	519㎡ (157평), 138.8㎡ (42평)	4층, 6층	카메라, 부조장비(HD급), 조명시설 등	직영운영
독립제작사제작 지원시스템	254.2㎡ (76.9평) 111.7㎡ (33.6평)	6층	종편실, 녹음실, 녹음편집실, 가편실 등	위탁운영
HDTV 제작지원시스템	255.5㎡ (77.3평)	6층	HD 카메라, 종편실, 가편실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2012년 운영예정

방송회관 제작센터는 방송회관 내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시설의 노후화 및 HD 방송전환을 대비하여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2011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었다.

표 7-2-2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년도	사업완료 물량
2009	- SD 종합편집실 2실 HD 전환 - SD 개인편집실 2실 HD 전환 - 아날로그 녹음스튜디오 1실 디지털 서라운드 전환 · Mixing 전용 스튜디오 1실 신규 구축
2010	- SDTV 스튜디오(156평) 1실 HD 전환 - SD 개인편집실 3실 HD NLE 시스템 전환
2011	- SDTV 스튜디오(43평) 1실 HD 전환 - SD 개인편집실 3실 HD NLE 시스템 전환

방송회관 내 독립제작사 제작 지원시설의 노후화된 HD 장비 업그레이드는 201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최초 구축년도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위탁운영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2009년부터 제작센터 노후 시설의 HD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일부시설을 직영운영 하고 있다.

표 7-2-3 향후 추진계획

년도	구축예정내역
2012	- SD 종합편집실 1실 HD 전환 - SD 개인편집실 2실 HD NLE 시스템 전환 - 기존 노후화 HD 시설 일부장비 및 부속품 교체 · HD 종합편집실 Switcher · HD VCR Head 교체 · HD NLE 시스템 교체

제2절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제작센터는 2004년 착공하여 2006년에 준공된 지상 12층 지하 2층 건물이다. 이 중 제작센터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6층부터 12층까지는 방송관련 유관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최첨단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제작여건이 취약한 국내 영세 제작사들의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영상 제작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디지털방송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요 제작

시설로는 HDTV 스튜디오와 후반 제작 지원 시설 등이 있다.

스튜디오는 HDTV 제작을 위해 형축이 넓은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HD와 SD급 방송영상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Full HD 공동제작지원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후반제작지원 시설인 종합편집실과 개인편집실에서는 HD에서부터 SD급 등 다양한 포맷의 영상물의 OSMU(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중앙 서버를 통한 NPS(Network Production System)를 설계 및 구축하여 모든 제작시설이 네트워크 연동 및 연계 작업이 가능하다.

표 7-2-4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제작센터 주요시설

시설명	면적	층수	시설내역
HDTV스튜디오(1)	598㎡ (181평)	4층	HD카메라
HDTV스튜디오(2)	197.3㎡ (60평)	2층	부조정실
HDTV스튜디오(3)	475.6㎡ (144평)	1층	조명시설 등
더빙스튜디오	95.3㎡	3층	녹음실
포스트제작시스템	187㎡	3층, 5층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등

DMS 제작센터는 위탁운영을 통한 시설 운영을 해왔으나, 효율적인 시설 활용과 제작사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2010년 중반기부터 TV 스튜디오의 직영운영을 시범 실시하였고, 2011년 2월부터 TV 스튜디오 3실을 모두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제3절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다매체 다채널 환경의 등장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독창적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고품질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독립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큰 제작시설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제작 인프라가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되어 있어 독립제작사의 지상파 방송사 의존구조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프라를 조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방송시장 환경에 대비하여 콘텐츠 산업 관련 집적시설을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고 뉴미디어 확산과 디지털방송 전환, HD 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 육성에 힘쓰고자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부)과 전파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제3구역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설립되고 있다. 방송제작시설은 2012년 12월에, 건물전체는 2013년 3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276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09년 1월 방송영상 제작지원 시설구축 공동추진에 관하여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한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6월 13일 건축착공에 들어갔다.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유통 관련 집적시설을 통한 디지털·HD 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HD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연간 7,364시간 가량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절감 비율은 제작 부문이 12.7%, 송출에서 14.9%, 유통에서 16.0% 정도로 예상된다.

표 7-2-5 세부 시설 내역

시설		수량	세부기능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센터	5실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신개념 콘텐츠 창작, 포맷 개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위한 실습시설 지원
제작	스튜디오	6실	525평형 1실, 313평형 1실, 150평형 4실 *부조정실 포함
	편집실	16실	HD 종합편집실 6개/ HD 개인편집실 10개
	녹음, 더빙실	각2실	5.1CH 돌비녹음 및 음향 더빙 기능
송출	송출시설	15CH	15개 PP채널의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에 디지털 전송
유통 (활용)	포맷변환실	1실	국내·국외 OSMU를 위한 다기능 포맷변환 지원
	정합 테스트베드	1실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콘텐츠의 뉴미디어플랫폼 구현 및 테스트 지원
	아카이빙, 온라인 유통 시설	각1실	콘텐츠의 보존,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유통을 위한 시스템 지원
광역제작지원	HD 중계차	1대	전국권 HD 제작, 송출 지원
비즈니스	교육, 사무실	15실/12개층	방송통신콘텐츠 창작/ 기획, 방송통신 신기술, 유통/마케팅 분야 등 교육, 오피스 시설 지원
기타	상가, 체험관		입주 및 방문 업체를 위한 편의시설, 일반인을 위한 체험시설

제4절 HD 드라마타운 조성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가 교양·오락·소형 드라마 위주의 500평 이하 중형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사업이라면, HD 드라마타운은 1,000평 이상의 드라마 전문 대형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이다. 한류 등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고품질의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1,000평 이상의 대형 스튜디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형 드라마 스튜디오는 전무한 상황이며, 필요시 임시로 창고를 개조하여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7부_ 방송영상산업 지원 동향

대형 드라마 제작단지 조성을 통해 제작비 감소 및 제작환경 개선을 이루고, 드라마 제작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드라마 전문제작단지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드라마 전문제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문화적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드라마세트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HD 드라마타운 조성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주체이며, 2011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은 국고 885억 원에 대전시가 480억 원가량의 부지를 제공한다.

표 7-2-6 주요시설 구성 내역

시설구분	세부기능
스튜디오 A(1,500평)	대규모 영상물 제작에 사용
스튜디오 B(1,300평)	미니시리즈, 일일 연속극, 영화 제작에 사용
스튜디오 C(1,000평)	시트콤, 단막극, 시츄에이션 드라마 제작에 사용
스튜디오 D(500평)	전면 크로마키 처리, 모션 캡처 시스템, 3차원 스캐너 등의 장비를 완비하여 CG 스튜디오로 사용
특수시설 스튜디오(1,000평)	법정·교도소·수술실·비행기 등 특수세트로 구성
미술센터	세트, 소도구, 의상 등을 제작·관리
오픈세트 존	시대상의 재현을 위한 옥외 세트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대형 드라마제작단지 조성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기준 연간 21억 4,700만 원의 제작비용 절감이 추정된다. 독립제작사의 비용절감 편익은 연간 18억 2,541만 원, 영화제작사의 비용절감 편익은 연간 3억 2,21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HD 드라마타운 조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후생이 증가함은 물론(2015년 346백만 원 추정), 관광객의 관광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15년 1,936백만 원 추정).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대전지역 429명(전국 94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대전지역 730억 원(전국 1,5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5절 3D 입체영상 제작인프라 구축

3D 입체영상은 영화, 방송, 광고 등의 영상산업에서부터 건축, 국방, 제조 등 타 산업으로의 확산이 빠르며 과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3D 입체 콘텐츠는 미래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제작사들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인프라를 제대로 갖추

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기존에 다양한 방송, 영상 콘텐츠제작 인프라를 구축·운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구축하도록 추진하여 2010년도에 DMS에 도입하였다.

3D 입체영상 제작인프라 구축 사업의 목적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지원하고, 3D 입체영상 One-Stop 지원이 가능한 입체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D 입체영상의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위한 제작지원 기반환경 구축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2-7 3D 입체영상 제작인프라 구축 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용	
2011: 3D 입체영상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제작(교양, 음악방송, 오락 등) 및 실외 제작(다큐, 영화, 드라마 등) 3D 입체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을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반 조성 - 3D 입체영상 촬영, 편집, 마스터링의 제작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제작 스튜디오 구축 - 지원 대상: 3D 입체영상콘텐츠(실내스포츠, 영화, 이벤트, 공연, 드라마 등) - 주요 도입 장비: 3D 입체영상 촬영시스템(Camera, Rig System, 3D Lens), 3D 보정장치(3D 입체영상 보정 및 세팅 값 조절용 장치), 3D 모니터링 시스템(3D 입체영상 모니터링용 장비), 3D 입체영상 마스터링 시스템(3D 입체영상 편집, 색 보정, 마스터링 장비), 저장 및 기타 장비(3D 입체영상 저장 및 신호축정, 분배 장비) 	
2012: 최첨단 중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입체영상 전문 중계차 도입 - 3D 입체영상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대형 야외 스포츠, 콘서트, 공연, 이벤트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지원 인프라 구축 - 스포츠, 행사 실황 등 생중계, 녹화중계, 현장녹화를 위한 일체의 방송 장비 구축 (3D 촬영 카메라, 리그시스템, 모니터, 발전기 등) 	
2013~2015: 3D 제작 원스톱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 송출, 유통이 가능한 원스톱 제작지원 서비스 제공 - 최첨단 3D 영상콘텐츠 제작시설 및 전문 기술 인력 제공 <p>*지속적인 신규 장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전문인력 교육으로 최상의 서비스 유지</p>	

1 제작기반 강화

2 인프라 지원

3 에이유동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제 3 장 해외유통 강화



1. 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 개최

콘텐츠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이용하여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꾀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부터 국제방송영상견본시인 BCWW(Broadcast Worldwide)가 개최되어 방송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BCWW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의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행사이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와 각국의 바이어 또는 업계 관계자간의 교류가 진행된다. 다양한 콘텐츠의 활발한 교류와 마켓 형성이 주목적이며, 마켓 참가자들에게 시의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삼아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11회 BCWW 2011은 전 세계 50개국 231개 전시사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견본시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은 3,000만 달러의 수출성적을 기록했다. 한류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KBS의 〈오작교 형제들〉, 〈영광의 재인〉, MBC 〈계백〉, SBS 〈무사 백동수〉 등이 일본, 대만,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됐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음악 프로그램 등의 수출계약도 이어졌다. ‘국제 전시마켓’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의 활발한 교류 외에도 ‘글로벌 미디어포럼’을 통해 국내외 방송 제작 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표 7-3-1 2001~2011년 BCWW 행사결과 및 주요 실적

개최연도	기간/장소	참가규모	예산규모	프로그램판매실적
2001년 (1회)	11.14-16 (3일간) 부산 BEXCO	25개국 110개사 바이어 708명	13억 원	570만 달러
2002년 (2회)	11.6-8 (3일간) 서울 COEX	24개국 99개사 바이어 1,033명	10억 원	770만 달러
2003년 (3회)	11.19-21 (3일간) 제주 ICC	22개국 151개사 바이어 1,774명	5억 원	976만5천 달러
2004년 (4회)	11.24-26 (3일간) 서울 aT센터	26개국 156개사 바이어 800명	5억 원	1,300만 달러
2005년 (5회)	11.16-19 (4일간) 서울 COEX	32개국 147개사 바이어 1,500명	7억 원	1,500만 달러
2006년 (6회)	8.30-9.1 (3일간) 서울 COEX	30개국 150개사 바이어 2,000명	8억 원	1,700만 달러
2007년 (7회)	8.29-31 (3일간) 서울 COEX	40개국 149개사 바이어 1,127명	12.3억 원	1,600만 달러
2008년 (8회)	9.3-5 (3일간) 서울 COEX	45개국 160개사 바이어 1,200명	10.5억 원	2,700만 달러
2009년 (9회)	9.10-12 (3일간) 서울 COEX	44개국 206개사 바이어 1,412명	9억 원	2,056만 달러
2010년 (10회)	9.1-3 (3일간) 서울 COEX	50개국 221개사 바이어 1,023명	11억 원	2,640만 달러
2011년 (11회)	8.31-9.2 (3일간) 서울 COEX	50개국 231개사 바이어 1,137명	9.5억 원	2,955만 달러

2. 해외 방송영상컨본시 참가지원

1) 2010년 사업 현황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 국제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지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송콘텐츠의 수출 대상국이 아시아 국가들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상대국가의 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의 경우 신규 시장의 진출이나 투자에 있어서는 마케팅 비용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한시키고, 한국 콘텐츠

제7부_ 방송영상산업 지원 동향

츠의 수출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선호계층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 마켓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사업목적은 우수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콘텐츠의 수출을 촉진하며,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해 고객 유치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010년도의 국제방송영상건본시 참가지원 실적은 <표 7-3-2>와 같다.

표 7-3-2 2010년 국제방송영상건본시 참가지원 실적

건본시명	지원내역	행사규모	지원업체	수출 성과
FILMART(3.22-25) 홍콩	기본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548개사	15개사	174만 8천 달러
MIPTV(4.10-16) 프랑스 칸느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장식비 일부	3,985개사	30개사	1,376만 8천 달러
STVF(6.8-10) 중국 상해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장식비 일부, 한국의 날 행사	800개사	16개사	728만 8천 달러
TTF(9.27-29) 대만	기본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75개사	12개사	507만 2천 달러
MIPCOM(10.2-8) 프랑스 칸느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장식비 일부, 한국콘텐츠 프로모션 행사	4,323개사	27개사	1,005만 달러
TIFFCOM(10.25-28) 일본 동경	기본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222개사	19개사	1,219만 천 달러
ATF(12.8-10) 싱가포르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장식비 일부	776개사	19개사	281만 8천 달러
합계			138개사	5,293만 5천 달러

2) 2011년 사업 현황

2011년에도 해외 국제방송영상건본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방송영상건본시 참가지원 사업은 방송사, 배급사, 제작사 등 방송영상물 수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기준 국제방송영상건본시 참가지원 실적은 표와 같다.

주요 건본시에 한국공동관 운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중심의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물 제작, 광고 등 한국콘텐츠의 홍보 마케팅에도 힘써 '한국콘텐츠' 브랜드의 통합 홍보도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적극적 지원과 수출 전략 논의를 통해 한국방송콘텐츠의 수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7-3-3 2011년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 실적

견본시명	지원내역	행사규모	지원업체	수출 성과
FILMART(3.21-24) 홍콩	기본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596개사	17개사	438만 5천 달러
MIPTV(4.4-7) 프랑스 칸느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장식비 일부	4,168개사	24개사	1,732만 4천 달러
STVF(6.6-9) 중국 상해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장식비 일부, 한국의 날 행사	670개사	13개사	933만 천 달러
DISCOP(6.21-23)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스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1,224개사	7개사	28만 5천 달러
합계			54개사	3,132만 5천 달러

3.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1) 2010년 사업 현황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은 이미 EU,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세계 각지의 다른 나라와 공동제작 협정을 맺거나 공동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교적 계기, 참여의사 등을 고려해 대상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상호 방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이다.

한류가 확산되며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송콘텐츠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한류 열풍과 더불어 반(反)한류·혐(嫌)한류 현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사와 대상국 방송사 간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및 교차 방영을 진행하는 것은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부터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지속적인 한류확산과 비즈니스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0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말레이시아, 러시아 2개국과의 다큐멘터리 8편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9억 9,900만 원을 들여 2010년 1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말레이시아 지원작인 <아시아의 허브, 말레이시아>는 2011년 4월 11일~14일 EBS를 통해 방영되었고, 말레이시아 현지 방송사인 ASTRO에서도 말레이어 재제작(post-production)본이 9월 20일 방영되었다. 러시아 지원작인 <우랄, 알타이를 가다>는 6월 6, 7, 13, 14일에 EBS에서 방영이 되었으며 현재 러시아 방송사와 현지 방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2) 2011년 사업 현황

2011년에는 중국, 콜롬비아와의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제7부_ 방송영상산업 지원 동향

의 경우,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협력사업에 관한 제안을 2011년 2월 중국 광전총국과 CCTV가 받아들였고, 2011년 7월에는 CCTV, 한국콘텐츠진흥원, KBS가 사업비 6억 원 규모로 2012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3자 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10월 1차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12년 1월 1차 프로그램 2편과 토크쇼 형식의 종합 프로그램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 2012년 7월까지 2차 프로그램 4편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2년 8월에 방영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남미 지역 국가와 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외문화홍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콜롬비아와 이미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과 FTA도 체결되어 있는 칠레를 각각 1, 2순위로 하여 후보국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결국 한국 기업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고 문화교류에 훨씬 적극적인 콜롬비아의 최대 지상파 채널 RCN TV와 2011년 6월 MOU를 체결하였고,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EBS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1차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콜롬비아 및 한국에서의 촬영과 후반작업을 거쳐 2012년 4월 양국 방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 4 장 전문인력 양성

1.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

2009년까지 추진되었던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인적 인프라의 육성과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구인·구직난 해결에 일조했다. 2010년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콘텐츠 업계 및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 내용은 <표 7-4-1>과 같다.

표 7-4-1 2010년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의 사업내용 및 취업실적

구분	사업내용	분류	목표	추진실적
추진행사	2010 콘텐츠 잡페어	취업실적	8회	238명
	콘텐츠분야 취업스터디	취업실적	3회	19명
	취업특강	취업실적	7회	39명
	콘텐츠 IN 취업캠프	취업실적	2회	3명
	콘텐츠 채용센터(상담)	취업실적	10회	9명
	컬처리스트 취업성공이벤트	취업실적	50회	44명
취업실적 합계				352명

먼저 2010 콘텐츠 잡페어(2010 Contents Jobfair)는 콘텐츠업계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 체계화된 취업의 장을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를 이루기 위해 상시 개최되었다. 수도권 및 전국 권역별로 주요 대학과 기관, 기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채용관 운영 및 취업컨설팅, 적성관리, 모의면접 행사 등의 이벤트를 통해 행사의 질을 높였다.

잡페어 외에도 취업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대학을 순회하며 취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상시 채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

화하면서 취업스터디, 취업특강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채용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을 제공하고, 협력기업 확대를 통한 채용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취업지원 사업 강화 외에도 잡페어 참여인원, 아카데미 수료생, 미디어인턴십 대상자의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2010년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콘텐츠 인사담당자 세미나 및 채용센터 홍보를 통해 회원을 확보하고, 능력 있는 예비인력 발굴 등을 통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2. 방송영상기술전문가 양성

1) 2010년 사업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콘텐츠아카데미¹⁾에서 지원한 '방송영상기술전문가스쿨'은 방송영상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방송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 양성 전문과정이다. 한국콘텐츠아카데미는 2010년 방송영상콘텐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과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술 전문가 과정, 미디어 평등권 확보를 위한 공익 정책 과정 등의 운영과 융합미디어 콘텐츠 제작기술교육 교재 개발, 미디어 융합환경에 맞는 첨단 디지털방송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분야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2010 방송영상기술전문가스쿨에서는 <방송영상콘텐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과정>으로 7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73명이 수료했다. 3D 입체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 과정을 비롯하여 사운드디자인, 디지털영상편집 및 모션그래픽, 특수영상과정(VFX)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차세대 인재양성 과정에서는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작품완성을 하도록 하여 제작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계 직무 재교육 과정>으로는 31개 과정에서 432명이 수료하였다. 제작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영상산업계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제작기술 전문가를 집중 육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융합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과 콘텐츠 창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었다.

<공익 정책 과정>에서는 장애인 미디어 제작과정, 유소년 워크숍 및 교수 워크숍 등을 운영했다. 교육과정을 통해 미디어 평등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융합미디어 콘텐츠 제작기술교육용 교재도 개발하고 있는데, 입체방송용 영상콘텐츠의 프

1) URL: <http://edu.kocca.or.kr/servlet/controller.homepage.MainServlet>

로덕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을 교재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교육시스템에 있어서도 미디어 융합환경에 맞는 첨단 디지털방송영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D 입체영상, CG 분야 등 융합미디어콘텐츠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2) 2011년 사업 현황

2011년 방송기술전문기양성 과정은 콘텐츠분야에 있어 창의적 청년리더를 발굴,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목표는 VFX(Visual F/X), CG 등 미래형 영상콘텐츠 제작 기술과 고도의 창작 역량을 갖춘 '산업계 맞춤형 전문 인력'의 육성과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산, 지원을 위한 우수한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기간 동안 집행될 총예산은 7억8,000만 원이다.

구체적 사업운영전략은 첫째, CG 제작기술 등 미래형 콘텐츠 제작중심의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하고 둘째, HD, 4K 제작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엔드(high-end)형 방송영상 제작교육을 운영하며 셋째, 첨단 방송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운영하여 수요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넷째, 방송영상콘텐츠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상담(Job Interview)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융합형 콘텐츠 제작기술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품질 강화를 도모하며, 콘텐츠비즈니스의 전문적 지식과 원활한 언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비즈니스 인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기술전문기양성 사업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계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

1) 2010년 사업 현황

한국콘텐츠아카데미의 온라인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는 융합미디어의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온라인 방송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방송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인력양성을 통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방송 교육모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및 디지털 방송영상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이버 방송아카데미

미 교육과정 운영이다. 사이버 방송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방송현업인 및 예비인력, 일반인 등 대상의 방송제작 실무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교원대상 원격교육연수원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교, 대학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익과정도 운영한다.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수강생 모집과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이다.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최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신규 콘텐츠의 개발 및 노후화된 콘텐츠의 재개발, 수준별 분야별 맞춤형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현장지식·경험·사례 등의 실무중심 교재개발 등 콘텐츠의 유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2010년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는,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된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와 학계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보급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 2011년 사업 현황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방송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창작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방송 교육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방송영상인력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여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사이버 영상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사이버콘텐츠 아카데미' 로 개편하여 기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분석된 회원 만족도와 트렌드에 기초한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목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며, 신규 개발과목이 선정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방송영상, 게임,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 경영,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155개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과정별로 전문 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관리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 연계한 Blended Learning 학습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이버콘텐츠 아카데미를 통해 고객 Needs 중심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방송영상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며, 융합미디어 환경에 맞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방송현업 및 학계의 교육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²⁾

2) 사이버콘텐츠 아카데미 온라인 신청: <http://edu.kocca.or.kr>

4.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운영

1) 2010년 사업 현황

한국콘텐츠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은 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드라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드라마 프로듀서를 양성함이 그 목표이다.³⁾ 현재 드라마 시장은 TV드라마 제작 구조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글로벌 중심의 수용자 시청행태 변화에 따라 Directing 이외의 기획/제작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분화된 매니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프로그램의 제작 완성도 제고와 수익성 창출에 있어서 TV드라마 제작의 핵심요소(캐스트/협찬/작가 등)를 갖춘 독립 외주제작사의 기획 프로듀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핵심인력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드라마프로듀서스쿨에서는 예비, 전문 프로듀서 과정으로 구분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창작 역량과 실무 제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구성, 운영하면서 우수한 드라마 프로듀서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실습,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 외에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특강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실무 과정 이수 후의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Job-matching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은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프로듀서를 양성함으로써 드라마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드라마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을 통해 교육받은 42명의 수강생 중 41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률은 82%에 이르렀다. 교육 제공과 취업과 관련한 성과 외에도 드라마 프로듀서스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 2011년 사업 현황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은 미래 드라마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드라마 프로듀서 양성을 목표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추진되고 있으며, 드라마 프로듀서 양성과 더불어 종편채널 및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시장 수요에 맞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의 교육과정 운영 및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운영을 위한 교육기자재 및 시설장비 확충이다.

기획 프로듀서 과정은 10개월 간 20명을 대상으로 드라마컨셉(프로그램기획 및 조사 활동, 기획안 및 제작계획서 작성, 대본작업, 스태프 구성과 캐스팅 등), 드라마 비즈니스&관리(예고제작 및 흥

3)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온라인 신청: www.dramapd.kr

보, 제작비산출 및 관리 등), 드라마 홍보&마케팅(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부가콘텐츠 개발 및 판매, PPL 협찬 및 광고유치, 브랜드 사업개발 및 머천다이징, 해외배급/ 합작사업, TV드라마 및 영화, OST국내외 배급, 해외배급네트워크구성, 합작사업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제작 프로듀서 과정은 10개월 간 20명을 대상으로 드라마제작(제작기획, 카메라, 음향, 조명 실습, 녹화, 편집 등), 프리프로덕션·프로덕션·스트프로덕션 심화교육, 드라마 산업·엔터테인먼트 법, 드라마 예고편 제작 및 홍보·제작비산출 및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감소된 반면 취업대상인원은 증가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육시간을 주 12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보다 내실화 있게 진행하고, 현장 인턴십 등을 강화하여 취·창업 실적을 전년대비 상향 설정하였다. 올해 목표는 취·창업률 82% 달성이다.

5. 3D 입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3D 입체 콘텐츠 제작이 선진 제작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습득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선도할 제작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3D 입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⁴⁾

사업의 구체적 목적은 콘텐츠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3D 입체 콘텐츠 제작 기술과 창작 역량을 갖춘 '맞춤형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국내 3D 콘텐츠 산업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3D 입체 영상 제작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선도할 리더급 인재양성을 위한 3D 입체 콘텐츠 선진 제작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다.

사업목적의 실현을 위한 운영 전략으로는 3D 입체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연계 과정' 운영, 3D 입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3D 입체 제작기술 인재 양성 과정' 운영, 3D 입체 제작 교육 인프라 조기 구축이 제시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표 7-4-2>와 같다.

3D 입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프로젝트 연계 3D 입체 리더 인재양성 4과정과 '3D 입체 제작기술 인재 양성'의 27개 과정을 합한 총 31개과정 35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국내외 현장실무 전문가와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들로부터 강의 및 실습교육, 제작현장 실습교육 등 과정별 커리큘럼에 의한 제작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아 현장 맞춤형 인재로 양성될 예정이다.

4) 3D 입체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신청: <http://edu.kocca.or.kr>

표 7-4-2 3D 입체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비
<p>프로젝트 연계 3D 입체 리더 인재 양성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입체 작품에 참여하는 제작 인력에 대한 '프로젝트 매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5개 프로젝트 50명 교육) - 실사 기반의 VFX 영화 전문 스테레오그래퍼 양성 - 실사 기반의 공연 중계 전문 스테레오그래퍼 양성 - 애니메이션 전문 스테레오그래퍼 양성 등 • 해외전문가 초빙 교수요원 활용과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테스트 베드형 프로젝트 베이스 및 팀티칭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 제작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 국내 2010년 추진 확정 된 프로젝트와 연계 교육 실시 - 실사 기반의 VFX 영화 → '미스터 고' 등 - 실사 기반의 공연 중계 →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 애니메이션 → '일곱난장이' 등 • 그래픽 분야 제작 파이프라인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전문과정 운영 • 운영 방안 - 각 프로젝트 당 해외 강사 영입하여 선진 기술 습득 - 프로젝트 특성에 맞추어 개별 운영 - 입체 제작 장르별(실사기반VFX, 공연·스포츠 중계, 애니메이션) 특성에 맞는 과정 설계 - 제작 실습 중심의 시제품 제작 및 상업화 연계 프로젝트 과정 운영 	5억 원
<p>3D 입체 제작기술 인재 양성 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입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Rig Engineer, Puller, Editor, VFX 등 S3D 테크니컬 엔지니어 제작 인력 집중 육성 • 3D 입체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와 국제 경쟁력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제작 교육 • 제작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 운영(27개 과정, 300명 교육 예정) - 교육기간 : 3월 21일 ~ 12월 16일 / 주 5일 전일제 - 3D입체프라이비즈(3회), 3D입체촬영(8회), 3D입체편집(8회), 3D입체VFX(3회), 스테레오그래픽(3회), 3D입체 게임(2회) 과정 	10억 원
<p>저비용, 고효율의 첨단 교육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입체 영상 제작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도입 • 촬영, 편집, 그래픽 분야 교육 시스템 구축 - 리그, 리그콘터롤러, 카메라, 렌즈, 렌즈콘터롤러, 모니터링시스템 - 입체편집 및 그래픽용 워크스테이션, 입체모니터, 편집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 	20억 원
합계	35억 원